"대비심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

현불논단



정운 스님
前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봄이 찾아왔다. 황벽(?~856) 선사는 "추위가 한 차례 뼈에 사무치지 않는다면 어찌 코를 찌르는 매화 향기를 얻을 수 있으리오"라고 하였다. 매화는 봄에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 곧 추위(고난과 역경)를 견디고, 봄철이 온줄 알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철 들었다'는 말을 하는데, 바로 이 매화에 비유한다. 중국인도 매화를 좋아하지만, 스님들도 매화와 관련된 시가 많다.

하여튼 선사들은 자연(花·木·草)을 통해 깨닫는 인연이 되고, 오도송에 꽃이나 나무가 빠지지 않는다. 몇년 전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 관련 논문을 썼다. 어른스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느낀 점은 한 가지다. 중국의 깨달은 승려들에게 깨달음의 기연(機緣)이 되었던 소재가 꽃과 나무 등인데, 대행 스님의 행적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물론 깨달음이 아니라도 대행 스님은 무정물에 대한 진정한 대비심(大悲心=연민심)을 기본으로 삼았다.

대행 스님의 경우, 출가하기 이전부터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중생에 대한 연민심이 스님의 삶 행간마다 드러나 있다. 대행 스님은 출가하기 전, '꺼내고 꺼내어도 줄지 않는 무량광장(無量光藏)을 생각했다. 곳간에 수많은 물건을 쌓아둔다는 것, 진리이든 재물이든 모든 것을 곳간에 두고 (중생에) 베풀어야겠다'는 무량광장 서원을 세웠다. 서원이란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보살 사상이다.

대행 스님, 대비심을 공부 기본 삼아
중생 이롭게 하는 利生 정신을 구현
속환사바 하시어 중생 제도해주시길

대행 스님은 무량광장의 서원을 세운 뒤에 출가한다. 그런데 대행 스님은 출가 전에도 하찮은 풀뿌리나 돌까지도 내면의 불성이 깃들어진 것처럼 느꼈고, 나무나 돌을 봐도 모두가 자신의 생명과 같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마음인지라 어린 시절에는 나무 한 가지 꺾지를 못했고, 배가 고파도 '내가 살기 위해 너를 꺾으면 금방 피가 날테지'하는 생각을 하였다. 이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 스님이 출가 전 부산에서 군복 수선을 할 당시 한센병 환자가 들어온 일이 있었다. 환자는 피고름을 짜낸 옷을 누벼달라고 하였다. 대행 스님은 그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고, 헌 옷은 촘촘히 기워주었다. 이때 대행 스님은 무량광의 창고, 한없이 베풀어도 줄지 않는 보살행을 서원했던 것이다.

이는 마치 불교교리에서 한량없이 성스러운 네 가지 마음이라고 하는 4무량심(四無量心)과 유사한다고 본다. 이후 대행 스님은 출가한 이래 홀로 정진하면서 뭇 중생들, 들짐승이나 날짐승들이 다 나의 벗이었다.

대행 스님이 출가 초기에는 누구에게든 "너도 이생(利生), 나도 이생이니 전부다 다 이생이다"라는 마음이었다. 중생에게 이롭도록 하는 이행(利行, 4섭법의 하나)의 정신으로 살았다. 이런 대행이었기에 스님은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스님께서는 "대비심이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다. 자기의 편안만을 추구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편안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다.

아무래도 대행 스님께서 빨리 속환사바하지 못할 것 같다. 지옥 문턱에 서서 눈물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도 다시 오셔서 한마음선원을 더 빛내고, 중생을 위해 꼭 오시길 간절히 기원한다.

우리네 이기심의 끝은 어디까질까

세간과 출세간



최원형
환경생태작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선 게 어스름 녘이었는데도 정원수들이 앙상해졌다는 걸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얼마나 가지치기를 심하게 했는지 줄기만 남기고 다 잘라버렸다는 표현이 오히려 적절할 정도였다. 겨우내 달고 있던 잎눈, 꽃눈은 결국 봄볕 아래 펼쳐보지도 못한 채 잘려 나갔다. 지난 겨울 습설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꺾이며 차량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사람이 다칠 뻔했다는 이야기를 더러 접했던 터라 올봄 가지치기를 예상했었다. 그러나 습설이 가지치기 이유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나무가 우거지면 새들이 많이 와서 앉아 지저귀니 새소리가 시끄럽다, 새똥이 떨어지니 차량이 피해를 입는다, 나뭇가지를 모조리 자를 이유를 꼽자면 열 손가락이 부족할 지경이다.

올해 강전정(강한 가지치기)이 이뤄지면서 작년까지 못 보던 풍경이 펼쳐졌다. 앞 동 어느 아파트 실외기 뒤로 까치가 나뭇가지를 쟁여두기 시작했다. 아마도 둥지를 지어볼 요량인지 밖으로 삐져나온 나뭇가지만 봐도 양이 꽤 되겠다 싶었다. 뭔가 뜻한 대로 둥지 모양이 안 나온다 생각했는지 바로 위층 실외기 뒤에다 또 나뭇가지를 찔러 넣기 시작했다. 과연 그곳에다 까치가 알을 낳아 품고 새끼를 길러낼지 잘 모르겠다. 둥지를 지을 나뭇가지가 다 잘려 나가니 이제 까치는 인간의 시설물을 살피기 시작한 게 아닌가 짐작할 따름이다. 아마 실외기 주인은 이 사실을 폭염으로 달궈진 어느 날 알아차리고 실외기에 다시는 까치가 얼씬 못 하도록 조치할 것이다. 그리고는 새가 지긋지긋하다 생각할지도 모른다.

강한 가지치기, 나무 고사 주요 원인
잘린 부위로 빗물 스며들어 세균 침투
편리적 판단에 생명은 오늘도 위태로워

가지치기에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강전정은 나무를 살아있는 존재로 여긴다면 할 수 없는 처사라 생각한다. 나뭇가지는 다시 자라기 때문에 어떻게 잘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는 무지를 증명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봄에 물이 오르고 광합성을 해야 하는데 잎눈 달린 나뭇가지 다 잘린 나무는 대체 어디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을까? 잘린 부위로 빗물을 따라 세균이나 균류가 침투해서 나무가 썩을 수 있다. 겉으론 멀쩡해도 속으로 썩어 들어가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태를 만드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아파트뿐 아니라 가로수도 비슷한 신세다. 가게 간판을 가린다, 낙엽이 귀찮다 등의 이유로 나뭇가지는 여지없이 잘려 나간다. 너무 무성해서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잘라달라는 민원도 제기된다고 한다. 나무가 잎을 무성하게 단 게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은 대체 어떻게 형성된 걸까?

이렇게 다 잘라내 버리고 나니 키 큰 나무 아래에 있던 관목들이 도드라져 보인다. 관목들은 용케 살아남았으니 운 좋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조만간 살충제가 퍼붓고 지나갈 것이다. 애벌레가 꼬이는 꼴 역시 봐 넘길 수 없을 테니까. 일 년 중 가장 아름다운 소리로 짝을 부르고 짝짓기를 하고 새끼를 기르며 열심히 벌레를 물어다 먹이는 와중에 새는 애벌레 숫자를 조절하며 생태계 균형을 잡아준다. 새는 그야말로 자연 살충제인 셈인데 오히려 살충제 남용으로 새들이 먹이 찾는 일은 더욱 고달파질 것이다. 귀찮고 시끄럽고 징그럽다는 주관적 환상에 빠져 편견에 의지한 채 사는 동안, 뭇 생명은 절벽 아래로 속절없이 밀려나고 있다.

社 說

사찰림 관리,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최근 발생한 영남 지역 산불은 사찰과 사찰림이 산불에 매우 취약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불교환경연대 산하 녹색불교연구소가 4월 11일 개최한 '대형산불의 원인과 대책' 주제 토론회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불교계가 산림 정책과 사찰림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 테이블을 이끌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하지만, 사찰림을 관리하는 정책기관들이 산림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필두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등으로 연계돼 있어서 효율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사찰림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6일 화엄사 주지 임명식 직후 이뤄진 환담에서 "최근 산림청장과 논의를 해보니, 유관단체별로 협조가 기민하게 이뤄져야 함을 알게 됐다"며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국가유산청 등과 불교계가 연계해 사찰림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찰림은 국토 면적의 0.7%, 산림면적의 1%인 6만 3000ha에 달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평가에 따르면 사찰림의 가치는 3조 100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찰림에 대한 가치는 물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찰과 함께 형성된 자연유산으로서 가치와 식생, 생태계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한다. 사찰림을 제대로 보존하기 위한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조계사 담선대법회 성료에 부쳐

조계종 미래본부, 서울 조계사, 전국선원수좌회가 주최한 담선(談禪)대법회가 성료했다. 담선재(談禪齋)라고도 했던 담선법회는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 초기부터 국가 주재로 3년에 한 번씩 봉행됐다. 〈고려사〉에 따르면 1155년(의종 9)보제사에서 '보제국담선재(普濟國談禪齋)'를 열었다는 기록이 보이는데, 이는 그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열렸던 담선법회의 계속이었다.

4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 간의 법석에는 백담사 기본선원장 영진 스님을 시작으로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현묵 스님, 백양사 수좌 일수 스님,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 상원사 선원장 의정 스님, 해인사 방장 대원 스님 등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들이 법사로 나섰다. 법석에는 매회 1000여 명의 대중이 참석해 선사들이 전하는 법문을 경청했다.

7명의 선지식들이 펼친 법석은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전법도생(傳法度生)을 종지로 하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국가와 국민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마음이 불편한 지금, 국민을 위로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법회를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봉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견의경〉에 따르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잠시라도 오롯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복은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크다"면서 법회의 공덕을 설하고 있다. 법이 바로 서 있는 법회는 불교 중흥을 이끄는 힘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탈종 및 제명 공고

- 종단명 : (사)대한불교금강종
- 사암명 : 대명암
- 주 지 : 정도 스님 (속명 : 김형구)
- 주 소 : 대전시 중구 선화로 22번기 25 미르마을A 105동 102호

상기 자와 사암은 본 종단 종헌 종법에 크게 위반된 행위를 하였음으로 탈종을 명한다.

또한 상기 자는 법산 스님의 문도에서 영구히 제명하는 바이다.

따라서 탈종 · 제명 공고일로부터 상기 자는 종단 및 법산 문도에서의 일체 법적 권한이 박탈됨을 천명하는 바이다.

불기 2569년(2025) 4월 11일

(사)대한불교금강종 총무원장 법산

종 단 공 고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69년(2025) 4월 23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69년(2025) 4월 23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